

# 들뢰즈 철학에 나타난 성(性)과 신체의 문제

정익순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 주제분류

프랑스 철학, 존재론, 포스트모더니즘

## 주요어

들뢰즈, 가타리, 탈주의 선, 영겁회귀, 성, 신체

## 요약문

들뢰즈 철학에는 많은 명령어와 용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들뢰즈의 철학은 서구 전통 형이상학에 기본 토대를 두고 다양한 학문적 분야를 두루 섭렵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 논문은 들뢰즈가 철학적 재현의 문제를 다룬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성과 신체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과 신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들뢰즈의 주요 저작인 『의미의 논리』와 『앙티 오이디푸스』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이다.

『의미의 논리』에서 들뢰즈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건이 던져주는 심층적인 즐거움은 의미와 무의미의 놀이와 사건을 통한 다양한 만남이다. 사건은 서구 철학의 형이상학이 어떻게 특이한 방식으로 전개되는가와 역설의 계열로 구성되는가에 달려 있다. 들뢰즈는 사건과 의미를 동시에 사유함으로써 서양 철학을 한 차원 높이 끌어 올린다. 『앙티 오이디푸스』에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독자적인 철학적 견지에서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정신분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성적 충동의 원인과 욕망하는 기계 그리고 유목민적 주체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사유에 대한 ‘탈주의 선’을 보여주고 있다.

들뢰즈 읽기는 우회의 논리와 새로운 지형의 확립에 대한 철학을 배우는 것이다. 과거의 철학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은 새로운 사회의 장을 만들어 보려는 들뢰즈의 욕망이며 철학이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탐색하고 언어의 장으로 사유의 선을 그리게 된다.

## 1. 들어가는 말

마이클 하트는 자신의 저서 『들뢰즈의 철학사상: An Apprenticeship in Philosophy』에서 들뢰즈의 초기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와 원리가 있음을 밝힌다. 이것은 들뢰즈가 그의 초기의 저작에서 이미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의 원리들을 제도의 이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전제와 원리들이다. 들뢰즈는 초기의 저작에서 적극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 외부에 위치시키고 사회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 내부로 끌어들이는 법률의 이론에 저항한다. 그리고 그는 제도의 이론을 부정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 외부로 위치시킨다. 들뢰즈는 사회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그의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들뢰즈에 대한 이런 설명은 그의 기획이 갖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가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공격을 정치적 과제로 지적하는 것과 철학의 중심적인 생산 목적을 순수하고 적극적인 창조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 속에는 들뢰즈가 제시하려는 그의 명제, 탐구, 기획 그리고 직관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와 원리들이 들뢰즈 사상의 발전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존재론적 우회로를 필요로 했고 광범위한 기존 철학에 대항하기 위한 기획과 공간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 들뢰즈의 초기 저술은 파괴와 건설이라는 비판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 들뢰즈는 헤겔주의에 대해 끈질기고도 무자비한 공격으로 일관하면서 다양한 명령어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우회적 공격은 새로운 철학적 지형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그의 직관이 베르그송에서 니체와 스피노자에 이르는 오랜 이행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들뢰즈는 윤리와 사회적 조직화에 관한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존재론을 끌어들이는다. 이와 같이 서양 철학사를 관통하면서 들뢰즈는 형이상학적 명상의 가장 높은 평면들 위에 그의 저술들을 합리화할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낸다. 결국 들뢰즈는 자신의 이론을 이러한 철학적 훈련 과정을 통해 생물학, 심리학, 예술, 수학, 정치학 그리고 문학으로 연결짓고자 한다.

초기 들뢰즈의 이론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대한 거부 혹은 포스트 철학이나 포스트모던의 담론명제로 들뢰즈를 해석한다. 그 이유는 들뢰즈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진술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들 속에는 그의 사상이 서양 철학의 전통에 깊이 개입되어 있으면서 그가 제시하는 사례들이 비철학적인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의 입장들이 보여주는 정합성과 설명의 양태는 논리적이며 존재론적인 평면들 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들뢰즈의 저서를 통해 그를 철학적 전통 외부에 놓거나 그것을 넘어선 사상으로 본다면 과거의 형이상학적 전통으로부터 빠져나가는 탈주의 선을 독해할 수 없다. 마이클 하트의 지적처럼, 우리는 들뢰즈의 방법론적 원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적대적인 대상과 술어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사유의 선에 대한 긍정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를 철학적으로 독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sup>1)</sup>

1968년 발표한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는 자신의 비판 철학의 근거를 제시한다. 여기서 들뢰즈는 철학적 재현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니체의 영겁회귀의 개념을 끌어들이는다.<sup>2)</sup> 들뢰즈가 설명하는 영겁회귀는 기존의 철학을 비순환적인 의미에서 철학의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전통적인 반복의 기계론을 재조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영겁회귀의 반복되는 개념의 근거에 비개념적인 차이, 차이 그 자체, 생성의 힘 혹은 감성적 존재로서의 차

1) 마이클 하트(1996), 30쪽.

2) 니체의 영겁회귀는 우주를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팽창이론을 연상시킨다.

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의 개념은 재현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동일성, 유사성, 차이성, 단수, 복수, 긍정, 부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통합적이면서 종합적인 재현 체계를 전복시키는 데서 발생된다.

들뢰즈가 설명하는 재현체계의 전복은 사건을 말한다.<sup>3)</sup>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룬다. 그리고 이 사건의 설명에 필요한 관계들은 작품 속에서 다루어지며 작품은 문학과 언어학에 대한 성찰에 의해 포착된다. 작품과 언어학은 인간의 철학에 대한 비개념적이고 감성적인 힘을 포착하는 문화적 사유 공간, 의식과 감각, 언어와 무의식이 결합되면서 그 깊이와 공간 그리고 장소로 제공된다. 들뢰즈의 이러한 사유는 바로 이 장소들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표면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재현 체계의 전복이 사건과 관련되면 사유의 내적 발생, 육체와 언어의 접합, 말과 사물의 접촉, 의미의 생성, 예술의 동적 형성이 밝혀진다. 들뢰즈는 이러한 사건의 개념을 통해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을 계열화시켜서 이를 『의미의 논리』에서 설명하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동저작인 『앙티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성적 욕망의 움직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이디푸스라는 길들여진 용어로서 연극에 나타나는 가족의 재현체계를 정신분석의 범위로 축소했다. 이들은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을 인간의 생산 욕망을 소유의 표상과 계급체계의 범주 안에서 인간의 노동으로 분석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앙티 오이디푸스』의 공격지점은 상식적인 서구사회의 철학적 사유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닫힌 체계와 그 체계를 형성하는 권력의 실체 혹은 보수주의에 의한 통제의 체계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저작들의 공통점은 서양 철학체계에 나타나는 오이디푸스의 억압을 전복시키고 사건의 의미를 강렬하게 해주면서 그 억압과 사건들의 의미를 넘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일 것이다. 들뢰즈의 그러한 입장은 개념 없는 차이와 반복, 사건의 숨겨진 의미, 그리고 정신분석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기관 없는 신체를 통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신체 혹은 몸에 대한 그의 철학적 접근이다. 들뢰즈가 생각하는 오이디푸스는 인형이 아니라 체내 분비물이고 분비기관일 때 그의 사유에 접근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적이면서 가족적인 재현체계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자신과 대항해서 싸우고 그의 운명과 삶을 거스르면서 스스로 실험하고 사랑하는 욕망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오이디푸스의 이러한 투쟁은 신체에 대한 인간적 구성을 파기하고 살아있는 조직체를 가로질러 각자가 자기 고유의 지대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서식하는 단체들, 인간들, 종족들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 2. 신체의 부분과 지대로서의 성(性)

들뢰즈는 성의 의미는 부분적인 대상으로 투입된 대상과 이 대상들에 부가되는 충동들에 상응하는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sup>4)</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선별적인 지대들과 욕망의 원천인 충동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욕망의 원천은 충동의 원천이며 일정한 충동에 상응하는 신체의 내적 기관이다. 즉 신체의 내적 기관은 흥분이 발생하는 장소이며 신체의 특정부위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충동들은 그 자체로 신체의 부

3) 이정우의 『시플라크르의 시대』는 들뢰즈가 역사적 사실을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 의해 의미가 생성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에서 시플라크르는 이마주와 같은 뜻으로 쓴다.

4) 들뢰즈(1990), 196쪽.

분이면서 충동의 대상이다. 신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집합이며 조합이다. 그래서 분석되고 종합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가 정신분석학의 대상이 되면 단계와 지대라는 두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신체가 다른 부분들과 활동함으로써 동화되고 여기서 생긴 충동들의 혼합물이 어떤 양식에 의해 실현되는 특정한 유형의 활동으로 이해한다. 즉 구강단계에서 흡입의 신체 활동이 일어나면 항문은 이에 대한 부분적인 신체의 활동으로 동화되어 작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니면 항문단계에서의 배설은 항문단계를 확장하고 다시 구강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지대이다.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지대들은 신체의 한 부분이 소외된 곳이다. 신체의 한 부분이 활동함으로써 그곳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하나의 원천을 발견하는 충동들이 신체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신체를 구성하는 한 단계의 부분적인 대상은 대상을 이끄는 활동들에 의해 조각난다. 결국 신체의 부분적인 대상은 그것이 점유하고 태두리 짓는 구역에 의해 전체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들뢰즈는 신체의 이러한 활동들은 거의 동시에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신체의 부분적인 대상들은 각 단계가 앞선 단계를 잠식하고 그 흐름에 개입하기 때문에 삶의 시작단계부터 신체가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신체의 성장단계와 부분으로서 신체의 지대가 표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문제와 신체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조직화가 심층도 상층도 아닌 제 3의 차원에서 구성되고 발견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은 들뢰즈에게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심층들의 메커니즘에 의미를 두고 성감대를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신체는 다만 표면 위에서 운동하는 부분이며 지대일 뿐이다. 이것이 들뢰즈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비판하는 이유이다. 프로이트는 신체의 성감대와 지대 혹은 부분으로 대상이 되는 성감대의 도착을 인간의 성적 도착과 성의 독자성이라는 고유한 차원에서 정의한다. 이러한 인간은 우울증을 초월하고 분열증을 전복할 수 있는 성도착증 환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착증과 우울증의 부분이며 지대인 성감대를 가지고 있는 신체는 신체의 표면 위에서 혹은 점막들에 의해 표시되는 신체의 관들 주위에서 펼쳐진다. 성감대는 신체의 내적 기관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내적 기관인 모든 내용은 신체의 외부공간의 내용과 접촉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생적인 위생학으로 신체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감대들이 표면에서 펼쳐진다는 것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사실 신체의 성감대는 표면에 드러나는 성감대의 내용에 선행되는 사건이다. 신체의 각 지대는 신경전달 계통의 관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모든 방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 표면 공간의 역동적인 형성인데 들뢰즈는 이것을 특이성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각 성감대는 하나 또는 여러 특이점으로부터, 특이성을 둘러싸고 정의된 한 계열적 전개로부터, 이 구역을 맡은 한 충동으로부터, 만족의 대상(이마주)으로서 그 구역 위에 '투출된' 부분적 대상으로부터, 구역에 연계되어 있으며 만족을 느끼는 관찰자 또는 예고로부터, 다른 지대들과의 접촉의 양식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sup>5)</sup>

이와 같이 들뢰즈는 표면이 신체 부분들의 접촉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건으로 특수한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본다. 사실 표면의 문제는 신체의 대상인 부분과 지대의 특수한 문제들보다 앞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들뢰즈는 성감대를 이해하기 위해 생식 이전, 즉 생식대가 형성되기 이전의 충동, 조직화를 먼저 이해한 다음 성의 부분적인 표면들의 진정한 생산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즉 신체의 부분들에 상응하여 자동적으로 생기

5) 들뢰즈(1990). 197쪽.

는 성애는 표면 위에 나타난 만족의 대상과 그것을 관조하고 즐기는 자기애적인 에고에 의해 특성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은 일반적으로 외부 대상 없이 자신의 신체를 통해 만족을 얻는 행위(자위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아의 신체는 그 단계에서 외부 대상 없이 그리고 통합된 신체나 에고의 이마주도 없이 행하는 성적 행동이다.

들뢰즈는 이와 같은 성적 충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형성되는가를 사유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신체의 분열 위치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서 반작용을 찾는다. 즉 신체의 표면 현상인 상층은 신체의 내부인 심층에 대한 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이한 능력이 있다. 상층의 위치에서 보면 심층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펼쳐지는 장소이다. 상층에서 볼 때 심층은 어느 정도 펼쳐짐이 가능한 일종의 주름이거나 표면에 의해 둘러싸인 국소적 통로일 뿐이다. 물론 신체에서 일어나는 분열층의 위치는 우울증의 저항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체의 각 지대는 저항을 없애는 많은 관들을 관통하거나 혹은 기관 없는 신체는 외곽이나 외부적인 성격이 없이 심층에 갇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층의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층의 표면은 부분적인 표면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심층의 현상이 파괴적인 충동이라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성적 조직화가 자기만족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체 안에서 성적 또는 리비도적인 충동들이 심층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체 내의 보존 충동과 죽음 충동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다. 신체 내에서의 보존 충동은 흡입에서 배설에 이르는 양분적 체계를 말하는데 이 충동은 현실적 대상들과 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대상과 목적을 젖먹이에게 적용한다면 젖먹이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대상 또는 현실적 대상을 소유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성적 충동은 보존충동을 모방하고 젖먹이의 성적 충동은 부분적인 대상으로 대체됨으로써 기회가 올 때만 생성된다. 신체는 충동으로 복원되며 동시에 죽은 신체는 영원히 보존되어 양분을 공급받고 자가 생식한다. 그래서 신체의 지대인 구강, 항문, 그리고 요도의 심층의 세계는 항구적인 전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아이의 성이 이마주에 따라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들뢰즈가 성을 표면들 혹은 지대들의 구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리비도적 충동들을 해방시키고자 함이다. 젖먹이의 리비도적 충동인 양분의 보존 충동은 신체의 한 단계일 뿐이다. 리비도적 충동들은 신체의 성감대가 새로운 원천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지대들은 이마주들 내에서 새로운 대상으로 발견된다. 젖먹이가 젖 빨기에서 손가락 빨기로 옮겨가듯이 하나의 성적 대상에서 해방되면서 빨기와 구분되는 다른 빨기처럼 다른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리비도적인 충동들은 표면들의 생산적 노동과 새로운 대상들과 관계함으로써 충동의 제약에서 해방된다. 들뢰즈에게 심층들의 구강적 단계와 표면의 구강적 지대를 내적인 부분적 대상이 아닌 이마주에 의한 표면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이중으로 해방된 리비도를 진정한 표면의 에너지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들뢰즈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본성이 시작된다.

들뢰즈의 성은 성적인 위치 혹은 지대의 총체를 성적 요소와 함께 다루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성적 요소들은 동기를 일으키면 서로를 잠식하기 때문에 서로의 접촉과 미리 그려진 도안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들뢰즈가 설명하고자 하는 지점은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통합과 일반적인 접속의 기능이 일어나는 생식대 부분이다. 성기는 신체의 다른 부분적 지대들과 관련되어 기능한다. 그리고 이 기능은 성기가 하나의 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특권적인 지대에 투사된 특수한 이마주의 역할을 한다. 이 투사된 특수한 이마주의 역할을 들뢰즈는 다음

6) 들뢰즈(1990). 199쪽.

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기관들이 그렇듯이 성기는 심층들의 모험을 이해한다. 그곳에서 성기는 조각나서, 어머니의 몸과 어린이의 몸 안에 놓이고, 공격당하면서 공격하고, 유해한 음식물 조각이나 파괴적인 똥에 동화된다. 그리고 성기는 상층의 모험도 안다. 상층에서 성기는 완전하고 좋은 기관으로서, 인칭 전체 또는 목소리에 상응하는 기관, 즉 부모의 조합된 위상을 형성하기 위해 후퇴함으로써 사랑과 승낙을 받는다.<sup>7)</sup>

들뢰즈는 성적인 *이마주*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생식의 조직화,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의 접근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표면들을 조직하고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는 자신의 양분과 잠재력을 부모들에게 맡기고 있다. 유아는 아버지와 충돌하지 않고 어머니와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 이마주로서의 성기는 표면의 기구로서 파괴적인 충동들, 내적인 나쁜 대상들, 그리고 심층들의 성기가 어머니의 몸에 난 상처들을 치유하고 좋은 대상을 확보하도록 운명지어진다.

이제 유아가 느끼는 불안이나 고뇌의 유죄성은 근친상간인 오이디푸스의 욕망으로 유도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적 징후들은 이전에 형성된 불안이나 고뇌를 분열적 공격성으로 만들고 유아의 유죄성은 우울증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오이디푸스의 문제는 심층들의 잠재력과 상층들의 잠재력을 무시했다. 오로지 표면의 현상만을 주장했다. 정신분석학이 오이디푸스의 확산으로 인해 신화 전체에서 찾아야 하는 해석을 성기의 고유한 본성에서 찾았던 것이 문제이다. 성기는 대지의 비옥한 얇은 층에 호소하는 보습의 날로서 표면에 선을 그릴 뿐이다. 결론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모든 부분적인 표면들을 유아의 몸 위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동일한 표면인 선에 불과하다. 부모와 분리가 이루어지는 지점은 오이디푸스의 성기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어머니는 치유해야 할 상처받은 몸이라는 측면과 아버지는 다시 불러들일 좋은 대상의 측면을 지닌다.

### 3. 들뢰즈의 성(性)

들뢰즈의 성은 정신분열자에 대한 분석의 임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할 수 있다.<sup>8)</sup> 이것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 욕망을 어떻게 연구하느냐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개인, 부족, 집단, 사회,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투자가 이미 존재하는 의식적 투자와 구별 혹은 대립되거나 아니면 공존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무의식적 욕망의 투자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해 노인들은 악의적으로 젊은이들을 비난하고, 반대로 젊은이들은 그들의 이익보다 욕망을 앞세운다. 이러한 세대간의 차이가 타인에게는 동물적 욕망, 욕망과 이익의 복잡함 속에 양자간의 반동적이고 혁명적인 형태들이 혼합물로 엉켜져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다음과 같이 정신분열자와 이에 대한 분석의 관계를 설명한다.

정신분열자 혹은 그에 대한 분석은 집단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 타전의 리비도 투자들을 밝힘에 있어서 지표들 밖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점에서 지표들을 구성하는 것은

7) 들뢰즈(1990). 200쪽.

8)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구적 생산을 정신병자의 경험으로부터 유래한 심리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제시한다. 이들의 목적은 정신질환을 낭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있다. 정신병자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무의식의 진정한 문제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다양한 부분으로 분리된 존재로 혹은 신체를 침범하고 억압하는 기계들로 경험한다.(로널드 보그, 151쪽)

성욕이다. 혁명의 능력은 개인이나 집단에 활기를 불어넣는 성적 충동들의 대상들, 목표들, 그리고 원천들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성욕이 어느 정도 더러운 작은 비밀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도 착들과 성의 해방은 아무런 특권적 지표가 되지 못한다.<sup>9)</sup>

이와 같이 정신분열자에 대한 분석은 세상에서 침묵하는 인간 사회에 대한 비밀의 공개이고 그 공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비밀은 과학적이고 정신분석적 방식으로 치료될 수 있다. 욕망을 죽임으로서 욕망을 억압하는 해방의 형식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길은 자기애적인 오이디푸스의 기원에서 성욕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자기애적 오이디푸스의 기원은 지어낸 이야기이며 성욕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문학과 언어에 관한 한 신체의 모든 부분과 지대들은 그 표면에서 성욕은 추잡스럽고 부끄럽고 굴욕적인 것이다. 오이디푸스의 영역 안에서 경계선 내부를 바라보면 성욕에 대응하는 흐름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전의 경험은 미리부터 성적 해방의 모든 전망을 무시하고 가족주의, 수음의 형태 그리고 동기를 성욕으로 몰아붙인다. 정신분석이 성욕을 해방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욕의 대상, 목표, 그리고 원천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허구로 가정된 이야기일 뿐이다.

이제 동성애와 이성애가 배타적인 이점의 관계로 파악된다면 어떠한 동성애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디푸스의 성은 배타적이며 선택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거세된 이야기의 소재로 등장한다. 욕망은 규범에서 벗어난 흐름들 속에서 횡단의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성욕의 나르시스, 오이디푸스, 거세의 좌표축은 가장 엄격한 검열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성의 대상들, 원천들 그리고 목표들은 아무리 문학과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 재현 그리고 실천된다 하더라도 성적 억압은 남아있게 된다. 정조, 성욕의 흐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대상과 목표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불변의 형상이 표준화되고 절단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파악된다. 어떤 이마주들이 이러한 빈곤함을 가지게 하는가? 성욕의 흐름은 성의 대표적인 형상인 약혼녀, 주부, 아내, 어머니 혹은 동성애자들, 이성애자들을 포함하는 아버지-어머니-나라는 오이디푸스의 삼각형에 의해 분배되는 한계에서 발생된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어떤 규칙에 의해 행해진다. 그래서 남근은 공동의 부재나 침묵 속에 존재하는 독단적인 기표이다. 오이디푸스의 전체적 남근은 양심의 가책과 회한으로 흐름이 끊긴다. 모범적인 주부, 어머니, 아내는 여자라는 어떤 규범화된 형상이 아니며 뚜렷하고 명확한 인격도 아니다. 그래서 들뢰즈는 여성을 진동으로 본다. 여자란 공기처럼 묘하고 부드러운 진동이다. 여성은 이 진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응답하는 진동을 찾아 전전한다. 물론 사태 그 자체를 보면 남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아닌 정신분열자에 대한 분석만이 비형상적이고 비상징적인 무의식에 도달한다. 그래야 추상화 같은 의미에서의 순수한 추상적 형상의 형태, 분열과 흐름 아니면 동일성이라는 최초의 조건들 하에서 파악된 욕망의 현실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들뢰즈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이다.<sup>10)</sup> 들뢰즈는 프로이트가 무엇을 했는가를 질문한다. 프로이트는 성욕에 작은 비밀이라는 치명적인 명예를 씌워주었다. 성욕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어릿광대의 비밀처럼 의학적 수단으로 성욕을 찾아낸다. 프로이트 앞에 서면 성욕은 부끄럽고 품위 없는 검열자의 생각이 이마주로 나타난다. 프로이트가 집착

9) 들뢰즈와 가타리(1992), 350쪽.

10) 들뢰즈 & 가타리(1992). 355쪽.

하는 명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리비도가 자기를 탈성욕화하고 이를 승화시키는 조건에서 사회터전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성욕은 나르시스, 오이디푸스, 자아와 가족의 틀 속에 감금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성적 리비도에 대한 투자 전체가 하나의 병적인 원인의 상태를 가진다. 병적인 원인은 자기애의 고착, 오이디푸스와 전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퇴행을 일으켜 편집병은 방위수단으로, 동성애는 강화된 충동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사랑과 성욕을 통한 리비도의 투자는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규정된 사회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신병 속에서 리비도는 끊임없이 역사, 대륙, 왕국, 인종, 문화를 창조한다. 그래서 들뢰즈는 역사적 재현 속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가족 재현이나 공동의 무의식의 원형들과 관련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사랑의 선택이 진동의 교차점에 있다는 것과 사회를 관통하는 흐름의 연결, 이접들, 그리고 연결들을 표현한다는 것에 두어야 한다. 흐름의 연결, 이접들, 연결들은 리비도에 의해 과거의 사회를 현재의 사회에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 사회들은 고대사회, 죽은 사회, 탄생되는 사회, 아니면 아프리카와 동양의 사회일 수도 있다. 그 사회는 지리와 역사의 형상 그리고 조상들의 문제와 연관된 사회가 아니다. 일반사회에서 형상과 책들, 이야기들, 복제를 통해 학습되는데 문제는 아무 것도 형상화 할 수 없는 사회나 공동체의 흐름들과 규준들이다. 이 흐름들과 규준들은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리비도의 강도지대를 지시할 따름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이 사랑하게끔 운명지어진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역사에 응답하며 역사와 함께 진동하는 강도 있는 신체의 그물망 전체 속에 들어있는 단일한 기호이며 점이다. 리비도는 이 지점이나 표면에서 멈추어 존재한다. 성은 침묵되고 숨겨진 존재이다. 사랑은 선택에 의해 나타난다. 사랑은 반동적이거나 혁명적이지 않다. 오직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만 성립된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의 관계, 여자와 여자의 관계는 반동적이거나 혁명적이지 못하고 침묵만 지킨다.<sup>11)</sup> 프로이트의 사랑과 성욕은 사회터전에 대한 리비도 투자의 무의식적인 지표이다. 그래서 사랑 받거나 욕망 되는 존재 전체는 공동의 언표행위의 원인으로서는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결국 사회와 그 흐름들을 투자하기 위해 리비도는 탈성욕화되고 승화되어야 한다. 사랑, 욕망, 흐름은 승화되지 않고 리비도와 그 성적 투자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낼 뿐이다.

들뢰즈의 성은 그가 『대담』에서 밝히듯이, 강렬한 독서로서 가능하다.<sup>12)</sup> 기관 없는 신체와 욕망 하는 기계는 바로 성의 문제를 들뢰즈식으로 글쓰기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다.<sup>13)</sup> 그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다. 강렬함 속에 이루어지는 독서 방식, 외부와 관계를 갖고 또 흐름을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책과 관계없이 개개의 사건들, 실험들, 장치들을 다루는 장치, 그리고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른 것들과 함께 움직이는 기능이 사랑이듯이, 지식인을 전형적인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의 성에 대한 이론이다. 들뢰즈에 의해 오이디푸스는 인형이 아니라 체내 분비물이고 분비기관으로 보이게 된다.

들뢰즈가 생각하는 신체의 부분과 지대는 의인화되거나 연극적인 연출로 전용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프로이트의 성적 충동으로서의 욕망은 가족적 표상 속에 가두어진 오이디푸스 이지 욕망을 생산하는 오이디푸스가 아닌 것이다. 오이디푸스에 의해 신경증과 무의식의 힘

11) 이 부분은 들뢰즈가 『의미의 논리』에서 투르니에의 Friday를 분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12) 들뢰즈, (1993), 33쪽.

13) 들뢰즈의 정신분석 비판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은 욕구하는 기계들, 기관 없는 신체 그리고 유목민적 주체이다. 이 요소들의 종합이 『의미의 논리』와 『양티 오이디푸스』에서 보여주는 관념의 문제를 구성한다.

은 왜곡되고 욕망은 가족 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문제는 욕망을 생산하는 무의식적 표상체계를 대응적인 표현이나 이해의 인과관계로 축소시킨 것에 있다. 무의식의 기계공장이 오이디푸스의 연극 무대로 축소될 수 없듯이 리비도의 사회적 투자가 가족적 투자로 축소되고 욕망을 오이디푸스 같은 가족적 좌표로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가족적이건 분석적이건 욕망 하는 기계들에 대한 억압의 장치이다. 그것은 무의식의 형성 자체로 있어야 한다. 이제 정신분석은 오이디푸스를 해결 혹은 해체 할 수 없다. 오이디푸스는 영원한 성에서 인간이 짊어진 부담이며 끝나지 않는 분석이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의 유전이다.

#### 4. 들뢰즈의 성에 대한 전망

들뢰즈는 『매저키즘』에서 인간의 냉정함과 잔인성을 설명하면서 성의 언어에는 민담, 역사, 정치, 신비주의, 에로티시즘, 민족주의, 변태성이 서로 연결되고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sup>14)</sup> 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매저키즘과 새디즘의 언어가 문학의 용도로 쓰이는 것은 그 작품들이 인간, 문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성공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임상학적인 신경장애를 설명하는 증후학의 언어도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표현법, 사고방식과 감성, 그리고 독창성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증후학에 대한 치료법의 발전이나 질병의 본질에 따라 새로운 인식에 의한 다양한 과정과 방식으로 증상의 이름이 붙여지고 새 이름이 첨가되고 분류된다.

그렇다면 성과 언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마디로 들뢰즈는 성을 거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정의한다.<sup>15)</sup> 그 결과는 성과 연관된 언어는 폭력, 에로티시즘과 포르노문학, 변태성, 권위, 침묵, 반복, 생물학적 두려움, 무의식, 움직임, 욕망, 신화, 여성적 언어, 남성적 언어, 이즘 등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건이다. 사건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 또는 말하는 것 이상을 발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건은 줄곧 언어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언어에 속한다.

언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곧 음성들이 사물들의 음향적인 성질들, 물체들의 음향들, 그들의 능동들과 수동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체들로부터 음성들을 분리하는 것이며 그들을 명제들로 조직하고 표현적인 기능으로 해방시키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입이다.<sup>16)</sup>

사건은 언어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에는 순수한 표면 효과, 되돌릴 수 없는 비물체성이 들어 있다. 사건은 물체들, 물체들의 혼합물, 그리고 물체들의 능동과 수동들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건은 이 모든 것들과 본성을 달리한다. 사건은 명제 안에 존재하지만 물체나 성질의 이름으로 주어나 술어로 실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들뢰즈는 이러한 것을 순수사건으로 정의한다.<sup>17)</sup> 순수사건이란 사건 자체이며 발생하는 어떤 것,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어떤 것, 아니면 그 자체로 능동도 수동도 아닌 전혀 다

14) 들뢰즈, (1996). 9쪽.

15) 들뢰즈(1996). 17쪽.

16) 들뢰즈(1990). 181쪽.

17) 들뢰즈(1990). 150-1쪽.

른 본성을 갖는 어떤 것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성은 문학작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언급하게 만든다. 들뢰즈는 미셸 투르니에의 Friday를 『의미의 논리』에서 다루면서 우선 일탈의 문제로 성과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일탈은 우주적 에너지로 보고 있다.<sup>18)</sup> 이 에너지를 간직한 일탈은 계속되는 노동을 통한 문명 세계의 경제적 재생산 대신 변형된 성을 통한 문명 세계로부터의 환상적인 일탈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일탈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일탈과 구분된다. 그곳에는 인간 중심주의도 없으며 성의 차이도 초월된다. 일탈의 개념은 사생아적이고 반 법률적이고 반의학적이다. 그래서 일탈 속에는 의학도 법학도 유효하지 않다. 그러한 일탈은 충동체계에서의 욕구의 힘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며 일탈자는 욕구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다른 체계 안에 욕구를 도입하고 그 체계 안에서 내적인 극한, 잠재적인 핵, 아니면 영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욕구 하는 자아도 실존하는 욕구의 대상도 아닌 타자가 생겨난다.

타자란 지각하는 각각의 대상과 생각하는 각각의 관념 주위에서 여분의 세계, 연결장치, 그리고 분석과 해석의 바탕을 조직한다. 이 조직화로부터 일정한 이행원리에 따라 다른 관념들과 대상들이 나온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타자는 아프리오리한 타자의 구조를 통해 현실화하는 향들로서 타자이다. 그래서 타자는 내포 가능한 실존이며 언어는 가능 자체의 실재성이 된다. 자아는 가능들의 펼쳐짐과 현실적인 것 안에서 타자가 실현하는 과정이다. 결국 타자는 가능 세계의 표현이며 배제된 구조로 타자를 이해할 수 없다. 타자는 이마주와 신체로부터 해방된 원소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면서 욕구를 다시 채워간다. 타자는 인간이 성에 대한 욕망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신체 혹은 희생물의 구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타자의 성적 행동은 우리에게 관음증과 신경증을 주입시킨다.<sup>19)</sup>

그러면 문화 사회와 연관된 성의 문제는 어떤 관계인가? 차이에 의해 형성된 사회의 개념은 선형적이면서 효력 있는 차이들의 내용과 일치하는 법을 위치시킨다. 그리고 문화는 기관들의 기능이 통합된 것처럼 개인들의 다양성으로 사회적 신체의 이마주를 지속시킨다. 다양한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유사물로 역할하게 만들어진 신체는 기능에 따라 정의된 부품들과 기관들의 구조로 구성되어 고정되고 서로 보완된다.<sup>20)</sup> 사건은 언어로 나타난다. 그리고 단어들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권력, 종교적 의식, 공적인 인식, 신화들의 유사기호와 관습들은 제각기 가치들의 유통을 위한 조직화된 영역으로 상상할 수 있다. 언어는 경제 체계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어 교환의 장소에서 발생된다. 사회는 더 이상 사회 계약론에 의해 가정된 개인들이 아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양한 이용가치가 있고 상호교환이 가능한 용어들이다. 이러한 특징은 언어를 통해 사건, 문화, 그리고 구조와 관련되면서 과거 사회와 현대 사회에 대한 글쓰기와 해석의 차이를 보이게 만든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양티 오이디푸스』는 리비도의 신체가 어떻게 사회와 연관되는지 새로운 지도 그리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sup>21)</sup> 리비도는 신체 속의 충동이며 욕망이다. 사회는 신체의 부품과 지대처럼 사건과 언어로 신체기관의 기능과 작동한다. 이들이 보는 신체와 사회는 프로이트가 해석한 정신분석학의 신체와 사회와는 차이가 있다. 『양티 오이디푸스』의

---

18) 들뢰즈(1990). 302쪽.

19) 들뢰즈(1990). 315쪽.

20) 콘스탄틴 & 도로시아(1994). 289쪽.

21) 들뢰즈 & 가타리(1992). 366쪽.

내용 자체가 아르토가 말하는 기관 없는 신체이듯이, 기관 없는 신체는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기관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달리 정의된다.<sup>22)</sup> 기관 없는 신체는 만족, 만족, 흡족함을 생산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기관 없는 신체는 아직 분화되지 않고 닫힌 만족이기 때문에 자체로 생산과 재생산을 하는 장소이다. 반대로 프로이트는 유아가 흥얼거리면서 군침을 흘리는 것은 이미 리비도의 쾌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유아는 만족을 넘어 그 이상으로 쾌락의 표면을 보여준다. 모든 기관의 연결장치들은 성적인 흥분표면의 초과생산과 관련된다. 결국 유아의 쾌락표면은 유아의 얼굴, 어머니의 가슴, 두 불과 담요의 칙칙한 상태를 관찰하지 않은 접촉의 표면일 뿐이다.

들뢰즈의 성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사회의 본성과 구조이다. 사회기계는 필연적으로 리비도 에너지의 코드화된 흐름들을 기록하고 전달하거나 통제하도록 작동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사회가 대지의 신체인 유목사회, 전제군주의 신체인 제국주의 사회, 그리고 자본의 신체인 자본주의 사회로서 부호화된다고 설명한다.

사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순환하고 순환시키는 것이 그 본질인 교환의 장이 아니라 표시하고 표시되는 것이 그 본질인 등록의 사회이다. 순환은 동기가 그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때에만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원시 토지기계가 해야 할 일은 기관들을 집합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흐름들의 규준화가 행해지는 것은 흐름들을 생산하고 절단할 수 있는 기관들 자체가 부분적 대상들로서 명확하게 구분되고 설치되며 사회 위에 배분되고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sup>23)</sup>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해 볼 때, 야만 사회는 영토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때 대지는 기관 없는 신체이다. 그곳의 여성 또한 스스로 순환한다. 사회도 영토이며 육지일 따름이다. 인간을 대지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야만인은 통합되고 완전한 단위로서 인간신체를 경험하지 않는다.<sup>24)</sup> 개인은 시민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사회에 소속되지 않는다. 유목사회에서 개인은 모든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회에 소속되는 방식은 비법전수이다. 개인의 신분은 비법전수에 의해 신분이 드러난다. 개인은 문신이 새겨지고, 난자 당하고, 관통되고, 포피가 잘라지고, 절개되고, 음핵이 제거된다. 이들은 유목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신체나 사회가 된다. 개인들은 여성, 물건, 임무, 그리고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 야만인은 인격, 개인, 그리고 입법의 주체가 아니라 대지라는 신체에 고정된 기관으로 사회에 속한다. 그래서 인간 사냥도 전쟁이 아니다. 그들은 영토, 전리품, 여성을 포획하지 않는다. 단지 누가 가장 용감하냐와 전쟁에서 가장 장렬하게 싸운 전사를 찾는다. 언어의 힘은 부족에게 용기를 주고 멀리 있는 부족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원시 사회의 이와 같은 특징 중에서 성과 연관시킬 수 있는 연결장치는 그들이 받는 고통이다. 비법전수의 의식에서 가해진 고통은 대중적이고 연극적이다. 야만인은 살에 상처를 낸다.

22) 로널드 보그는 『들뢰즈 & 가타리』에서 기관 없는 신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관 없는 신체는 스포노자의 내재적 실체와 유사하며 욕구하는 기계들은 그 실체의 궁극적인 속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관 없는 신체는 욕구하는 기계들을 그 부분들로 가지는 전체가 아니라 욕구하는 기계들과 나란히 생산된 여분의 부분이다. 전체는 총체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산의 조직화된 체계이며 기관 없는 신체와 기관들은 동시에 대립되는 유기체로서의 신체의 대응물이다”(153쪽).

23) 들뢰즈 & 가타리(1992), 142쪽.

24) 레비-스트로스는 『야생의 사고』에서 야만의 사고는 신화적 사고와 구체의 논리로 표현되는 사고이며 이것은 문명인의 사고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인이 하는 사고의 일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고 형태는 실제로 우리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세계에서 지적 조작이나 예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브리콜라주이다(68쪽).

그들의 신체에 낸 상처의 흔적은 문신 새기기, 구멍 뚫기, 명각, 절단, 할레, 절개, 음핵절개이다. 이러한 것들이 원시 사회의 쾌락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시 사회의 쾌락은 프로이트의 쾌락원리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프로이트는 항문기 다음에 남근 단계가 온다고 했다. 소년의 남근이 뺏겨지는 쾌락은 외부로 움직이는 쾌락이 외부와의 연장 작용으로 느껴진 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에서 소년은 그의 진짜 페니스와 이러한 쾌락을 남근 되기의 추상적 쾌락으로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은 자신을 타자와 구별하는 자아로 대체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은 남근과 동일시된다. 결국 아이의 비법전수에 따라 남근의 정체성은 감춰지거나 노출된다. 반대로 들뢰즈는 탈부호화되고 탈영토화된 남근의 본성을 주시한다. 원시사회에서 소년의 최초의 사정과 소녀의 초경은 중요하고 부호화된 사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춘기의 정액과 피의 흐름은 탈부호화, 탈영토화, 비밀화로 이어졌다. 소년 소녀들은 한 밤에 문을 잠그고 어떤 행동을 한다. 개인의 비밀은 은밀한 기관이며 흐름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들뢰즈의 성은 누락된 문장, 은밀한 밀담, 분절을 전달하는 환상적인 남근의 침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담론, 소설, 비평, 철학에서 편재의 문제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난다.

K C I

## 참고문헌

- Constantin V. Boundas & Dorothea Olkowschi: *Gilles Deleuze and the theater of Philosophy*. New York: Routledge, 1994.
-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nti-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92.
- \_\_\_\_\_ :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 phrenia*.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7.
- \_\_\_\_\_ : *Kafka: Toward a Minor Literatur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6.
- \_\_\_\_\_ : *What is Philosophy?* New York: Verso, 1994.
- \_\_\_\_\_ : *Dialogu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 Gilles Deleuze: *The Logic of Sens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 *Difference and Repet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 *Nietzsche and Philosophy*. London: The Athlone Press, 1996.
- \_\_\_\_\_ : *The Fold: Leibniz and the Baroqu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93.
- \_\_\_\_\_ : *Masochism: Coldness and Cruelty*. New York: Zone Books, 1991.
- \_\_\_\_\_ : *Spinoza: Practical Philosophy*. San Francisco: City Lights Books, 1988.
- \_\_\_\_\_ : *Kant's Critical Philosophy: The Doctrine of the Faculties*. London: The Athlone Press, 1983.
- Levi-Strauss, Claude: *The Savage Mind*.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1966.
- Philip Goodchild: *Deleuze and Guattari: An Introduction to the Politics of Desire*.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 들뢰즈: 『대담 1972-1990』. 김종호 역. 서울: 솔, 1993.
- 로널드 보그: 『들뢰즈와 가타리』. 이정우 옮김. 서울: 새길, 1995.
- 마이클 하트: 『들뢰즈의 철학사상』. 이정우 옮김. 서울: 갈무리, 1996.
-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서울: 거름, 1999.

## **The Problem of Sexuality and Body in Deleuze's Philosophy**

Ik-Soon, Chung

In Deleuze's philosophy there are a lot of decrees and terms existed. The philosophy in Deleuze is based on the traditionally western metaphysics and it is derived from the production of various studying fields that he devoted himself to.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sexuality and body that Deleuze studied for the representation of problems in philosophy. In order to deal with them, we must discuss his major works, *The Logic of Sense* and *Anti-Edeipus*.

In *The Logic of Sense*, Deleuze basically treats the event. The deep pleasure the event gave is an encounter through sense and nonsense of game and event. And the event depends on the way how metaphysics is singularly developed in the western philosophy and how the structure of it is made up in the series of paradox. Deleuze had in mind the event and sense at the same time so that he drew the western philosophy up in its scale. In *Anti-Odeipus*, Deleuze and Guattari, with their particular point of view, criticized modern civilization and newly opened the horizon for the psychology. Especially, criticizing Freud's psychology, they taught us the line of flight to analyze the cause of human's sexual motivation, desiring machine and nomadic subject.

The reading of Deleuze means to learn about the logic of detour and establishing new territory of philosophy. It is Deleuze's philosophy and desire that we can reinterpret the past philosophy into modern sense and open new field where we make new locus of society. Therefore, we can explore the human mind inside and outside and map the line of thought.

Key Words      Gilles Deleuze, Felix Guattari, line of flight, eternal return, sexuality, body

к с і

к с і